

도내 중국 수출업체, 사드 보복 현실화

통관 지연·투자추진 중단 겪어... 전북지역 산업 피해 갈수록 늘어날 듯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도내기업들이 통관 지연이나 투자추진 중단을 겪는 등 지역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9일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와 업계에 따르면 전주지역 기업 A사는 그동안 수출에 문제가 없었던 제품 라벨에 표기된 표현을 중국 현지 식파라치가 관련당국에 신고해 현지로 보내 통관이 됐던 제품(5,000개)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

또한 A사는 바이어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바이어 및 관련당국과 협의해 제품 라벨을 새로 붙여 납품하고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전주에서 미용제품을 수출하는 B사는 지난해부터 중국 업체와 소량으로

거래를 진행하다 올해 연예인을 동반한 각종 프로모션 행사를 양국을 오가며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국측 카운터파트가 올해 초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행사의 무기한 연기를 요구해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B사 관계자는 "자사가 파악하기에 행사를 진행하기에 큰 문제가 없는데 중국 업체는 회사 내부 방황으로 당분간 연기하자는 입장을 보였다"며 회사 내부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익산에서 식품을 수출하는 C사도 지난해부터 중국 업체와 거래를 위해 협상을 해왔고, 중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를 했으며, 한달 전에 샘플을 중국 업체에 보냈

는데 통관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드 보복이 현실화되면서 대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전북지역의 산업 피해는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해 전북 수출액의 12.8%를 차지한 수출 1위 국가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중국의 여러 경제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특별상황반인 '대중 무역예외 신고센터'를 긴급 설치한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상황반은 국내 기업들이 대중 교역(서비스)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무역협회 홈페이지 및 트레이드플랜터(☎1380)를 통해 접수해 긴급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대중 무역예외 신고센터', 국내 13개 지역본부 및 3개 중국 지부(북경, 상해, 성도)를 통해 접수된 애로사항을 관련 정부 부처와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FTA 전담지원 기관인 차이나데스크의 전문가(관세사, 무역현장컨설턴트, 변호사)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상담 또는 방문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나 통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긴급건의 채널을 활용해 수출 업계의 애로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영준 전북본부장은 "전북기업들의 수출입 및 현지 기업 운영 관련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해 애로해소를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역협회 전북본부로 사소한 피해 상황이라도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협약

잔류농약 검사 등 대폭 강화·안전한 농산물 공급기로

전북농협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원은 9일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농식품 안전성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전북농협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앞장서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산물이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판매장에 출하하기 이전인 생산단계에서의 잔류농약

검사 등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결과 잔류허용 기준 초과시에는 폐기 또는 출하연기 조치 등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판매장 등에 출하되도록 해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양 기관이 협력하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판매장 내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조사, 단속, 지도, 교육, 홍보 등에도 적극 협력해 소비자 권리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해 전북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용 기자

원하도급분쟁, 허술한 대처로 피해 더욱 증폭

분쟁대응 매뉴얼 정립 등 업체들 자구노력 시급

원하도급분쟁이 발생한 후에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허술한 대처가 피해를 더 키우고 있어 분쟁대응 매뉴얼 정립 등 업체들의 자구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업체 A사는 작업진행순서가 중요한 시공법을 적용한 현장에서 발주기관의 잘못으로 계획된 순서대로 작업이 여의치 않게 되자 원하도급사가 작업장 순서를 바꾸고 재래공법으로 시공할 것을 요구했다.

A사는 당연히 추가비용을 보전해 줄 것으로 생각해 공법 변경에도 불

구하고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고 공기를 맞추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줬다.

또한 분쟁해결 과정에서도 원하도급사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조정을 받는 등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실내건축공사 전문업체 B사는 변경공사, 추가공사를 지시하고 현장담당자를 잡아치우며 비용은 나 몰라라 하는 원하도급사의 수법에 걸려 계약금액보다 실행가가 50% 가량 더 나왔지만 후속공사를 기대해 분쟁제기를 하지 않아 비용보전을 받지 못했다.

모두 분쟁이 발생했는데도 허술하게

대처해 피해를 더 키운 사례다.

전문건설업체들은 더욱이 분쟁이 발생하면 동종 업계 관계자나 건설분쟁 경험유무를 떠나 '아는' 또는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 준' 변호사 등에게 의견을 물어 해결은커녕 상황을 악화시키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A사를 상담한 건설하도급분쟁연구소 소장은 "시공만 해온 전문건설업체는 분쟁을 처음 겪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실수를 거듭한다"며 "사태를 키울 대로 키운 다음에 방문해 수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건설업체라도 법무 전담 직원이 있는 업체는 사전에 계약이 타당하지 등 의견을 묻고 피해를 최

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며 "변호사의 법률의견서만 작성해 제출해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도 "서류가 없는 것은 물론 대리인 없이 중재과정에 참여해 우기고 보는 대응으로 손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문서가 무거우면 외부도움은 필수"라고 말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관계자는 "분쟁발생 초기에 우리 협의회나 전문건설협회에 의견을 구해도 그나마 다행"이라며 "작은 업체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직원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대표가 모두 챙긴다는 실정으로 초동대처를 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재용 기자

금융감독원, 민원처리전문인력 채용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분쟁·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금융 현장 경험이 많은 '민원처리전문인력'을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40명 내외이며, 은행, 증권, 보험 2개 분야이다.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에서 민원처리 경력 10년 이상 또는 금융회사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민원 상담 및 진행상황 안내, 단순·반복적인 민원 및 분쟁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17일 마감이며, 금융원 채용홈페이지(emp.fss.or.kr) 참조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농촌진흥청, 재배 쉬운 약초 5종 제시

농촌진흥청은 최근 도시민에게 인기가 높은 주말농장과 텃밭에서 재배가 쉬운 약초 5종을 제시했다.

선발된 5종의 약초는 전국 모든 텃밭에서 재배할 수 있고 종자를 구하기 쉬우며 씹거나 나물로 먹을 수 있다.

텃밭에서 재배하기 좋은 약초로는 잔대, 일당귀, 쑥바귀, 더덕, 도라지 등 5종이다.

잔대는 갈습과 비타민A와 C가 풍부하며 이른 봄씩과 뿌리를 나물로 이용한다. 특히 새싹은 맛이 달고 씹히는 맛이 부드러운 젊은층에게 인기가 많다.

일당귀의 어린잎은 향이 좋고 가능성이 풍부해 생선이나 불고기등과 잘 어울려 쌈 채소로 제격이다.

쓴맛이 나는 쑥바귀는 소화와 돕고 식욕을 돋우어 주며 갈습, 철, 비타민 A 함유량이 시금치보다 월등히 높다.

봄철에는 데쳐서 무침이나 쌈채로 즐기기도 한다. 섬유소가 풍부하고 열량이 적어 비만인 사람에게 좋다.

더덕과 도라지는 사포닌 성분이 많아 봄철 황사나 미세먼지 흡입으로 손상되기 쉬운 폐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주로 뿌리를 이용하며 잎 또한 식용이 가능하다.

/인재용 기자

농촌진흥청, 발암추정 농약 안전성 재평가 마쳐

안전사용 기준·준수사항 당부

농촌진흥청은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추정 물질로 발표했던 글리포세이트, 다이아지논, 말라티온 등 3종 농약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마쳤다.

글리포세이트 및 다이아지논은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의 발암성 평가자료는 물론, 국내에서 농작업자 노출량 측정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실시했고,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신

규·변경 등록 및 출하물량 제한 조치를 지난 2월 2일부터 해제했다.

또한 말라티온은 해당 농약회사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15일 등록을 취소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지난 2월 28일까지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안전성 재평가 결과, 글리포세이트는 비선택성 제초제로 농작물에는 사용할 수 없고, 잡초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 의한 섭취 가능성이 적고, 동물시험에서 발암성이 유

발되지 않았으며, 농작업자에 대한 위해성도 낮았다.

다이아지논은 동물시험에서 발암성이 유발되지 않았고, 유전독성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유럽 식품안전청, 일본 후생노동성, 세계보건기구,식량농업기구 합동 농약잔류전문가 회의, 미국 환경보호청 등에서도 발암성 농약이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미국, 유럽 등은 밀, 보리 등을 수확하기 전에 건조제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발암 연관성이 낮거나 없었고, 대규모 역학조사 연구에서도 발암 연관성이 없다고 평

가했다.

다이아지논에 대해서도 발암성 및 유전독성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안전성 재평가 결과로 해당 농약이 안전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업인들은 농약 사용 시 안전사용 기준과 준수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김경선 농자재산업과장은 "앞으로도 농약 등록 시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